† 회원사동정 †

한전정보네트웍(주)

새 기업이념 선포 "최상의 기술과 서비스로 새로운 가치창조"

한전정보네트웍(사장 서사현)은 지난 10월 1일 본사 강당에서 "최상의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로 전력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조에 기여한다"는 기업이념을 선포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92년 한전의 전력산업에 필요한 정보통신부분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95년 5월부터 한전의 정보통신 운영, 유지보수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전정보가 이번에 새 기업이념을 선포하고 새출발을 선언한 것은 IMF 체제 이후 대외시장 개방의 가속화, 정부의 자율적 시장경제체제 강화,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에 대비하여 한전정보의 핵심역량을 집중화, 전문화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정보는 이날 기업이념의 실현을 위한 4대 경영방침도 제정하였는데, 경영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 권한과 책임의 하부 위양을 통한 책임경영, 고객만족 경영, 그리고 노사간, 계층간, 조직간의 인화단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전정보는 새 기업이념에 맞춰 사업 및 조직도 개편할 예정이다.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경쟁사보다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이미 기술이 일반화되어 있어 민간기업의 공급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수를 검토중이며,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 민간에 위탁할 경우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저해 요인이 되거나, 전력계통 보호설비 유지보수와 정보시스템 운영 등과 같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강조되는 사업에 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 정보네트웍은 중소기업체의 어음 할인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고 어음 수령으로 인한 잦은 왕래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급어음 위탁 교부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어음 위탁 교부제도란 채무자가 발행한 지급어음을 채권자가 원하는 거래은행을 통하여 어음 또는 결제 대금을 수령하는 제도로서 채권자는 어음 수령과 금융거래에 소요되는 불편이 해소되며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채무자는 대금지급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상거래의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한전정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자사 거래은행과 별도로 10.75%~12.5%의 발행어음 할인 약정을 맺었는데 이는 시중 실세 할인율에 비하여 5.25%~3.5% 정도 낮은 수준이며, 적금가입 등 부대조건이 없고 연대보증인 입보 생략도 가능하다. 그런데 발행어음 할인 약정을 맺고 어음 위탁 교부제도를 시행한 것은 전력그룹사 중 한전정보가 처음이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력기술세미나 개최

한국전력기술인협회(회장 권용득)는 지난 9월 29일 영등포 교육장에서 「전력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력설비 및 첨단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다졌다.

이날 세미나는 협회회원 및 기업체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전명수 한신컨설턴트 전무와 유상봉 용인공전 교수가 각각 「수·변전설비의 현장사고사례 해석」, 「노이즈·고조파 장해 및 대책」에 대해 강의했다.

강사로 나선 전명수 전무는 「전력계통이 대형화되고 부하설비가 다양해짐에 따라 전력계통에 나타나는 고장 및 이상현상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기술적·법률적인 대책을 마련, 문제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봉 교수는 「근래에 이르러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는 반도체 기기 시스템은 뇌서지(Surge) 및 개폐서지, 노이즈(Noise)에 취약해 특성의 열화, 손

상, 오동작 등을 일으킴으로써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자기회복성이 없는 반도체는 영구파괴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회로기능의 정지 등으로 인해 2차적인 손실을 유발시키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정보화 기기의 효율적 운용과 신뢰성 향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교수는 이어 전자파장해현상, 노이즈의 영향 및 방지대책, 전력계통의 EMI현상, 고조파 장해 및 억제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전력기술(주)

회사창립 23주년 맞아

한국전력기술(사장 박상기)이 지난 10월 1일 회사창립 23주년을 맞았다.

박상기 사장은 이날 본사 6층 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행사를 갖고 직원들에게 올해부터는 해외사업 개발에 더욱 주력하여 IMF 극복을 위한 기술수출에 더욱 진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기는 발전소 설계기술 자립의 조기달성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75년 설립되었으며, 최근 준공된 최초의 한국표준형 원전이 울진 3호기의 플랜트 종합설계를 담당하는 막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한기는 또 그 동안 국내의 원자력을 비롯한 수화력발전소 등 각종 발전소사업에서의 참여경험을 통해 에너지 관련 산업과 고속철도 및 인천공항건설 사업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사업 개발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기는 지난 7월 세계적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인 美 ENR지가 선정한 세계 150대 설계회사 중 매출 69위에 랭크된 바 있으며 올해 총 매출액이 약 27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제18대 회장에 김창준씨 당선

김창준 자유전기대표가 제18대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에 당선되었다.

전국대의원 401명 중 3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2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전기공사협회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은 김창준 후보에게 248표를 장영옥 후보에게 124표를 던져, 김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회장선거투표에는 대의원 372명이 참여했다. 대의원들은 회장선출에 이어 13명의 이사와 1명의 회원감사 등을 선출,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새 이사에는 김의진-이범호-윤지호-이윤재-이영봉-박헌달-손정길-정인효-김용수-오종천-이춘기-하현오-김영준씨가, 새회원감사에는 최일웅씨가 각각 선임됐다.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남부지방법원의 판결로 성립된 부의안건인 ▲부당인출협회공금환수대책수립의 건 ▲회장보선의 건 외에도 ▲임원불신임 및 상임임원 해임의 건 ▲임원선임의 건을 상정·처리했다.

김창준 후보는 회장 당선 후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실추된 전기공사협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분리발주 폐지논란과 전기공사업법 개정 등에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LG산전(주)

차세대 新 엘리베이터 출시

LG산전(대표 : 李鍾秀)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분산제어 엘리베이터를 개발하고 李鍾秀 사장을 비롯 승강기관리원 및 엘리베이터협회의 임원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6일 창원공장에서 新 엘리베이터 출시 기념 및 엘리베이터 누적 10만대 생산 돌파 행사를 가졌다.

고장률 0.09%로 세계 최고 품질 수준의 엘리베이터 개발

이날 행사에서 LG산전은 생산대수 누적 10만번째 엘리베이터이자 고장률을 0.09%로 획기적으로 줄인 分散제어 방식의 최첨단 엘리베이터를 선보였다. 이 엘리베이터는 LG산전이 5년 전

부터 추진한 「차세대 제품 개발 프로젝트」의 결실로 오는 2005년 세계 5대 엘리베이터 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LG산전의 주력 모델이다.

이 제품 개발에 LG산전은 250여명의 연구 인력과 3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지난 2월 저속 모델에서부터 분속 420m급의 초고속 모델까지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그 동안 시범 설치 및 현장 테스트를 거쳐 양산체계를 완료하고 이날 新엘리베이터 출시기념회를 가진 것이다.

개발 책임자인 송승봉 수석부장은 이 엘리베이터 원리를 「엘리베이터와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의 접목」이라고 밝히고, 「자체 명령 처리 기능을 갖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한 각 기기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층별, 호별 등의 분산 제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층별, 호별로 따로 제어하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군관리 시스템 없이도 최대 4대까지 군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엘리베이터 고장의 주원인인 복잡한 배선을 기존 엘리베이터에 비해 90% 이상 단순·간소화시켜 그 만큼 고장률도 대폭 감소시켰다.

LG 산전이 시범 설치한 전국의 30여개 빌딩에서 테스트한 결과 고장률이 0.09%로 나타났는데, 이는 1%를 상회한 기존 방식은 물론이고 일본 제품의 0.1%보다도 낮은 것으로 가히 고장없는 엘리베이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수치이다.

진동·소음·전력 비용 등 획기적으로 줄여

이 엘리베이터의 또 다른 장점은 전력 소비 절감과 우수한 승차감에 있다. 전력 절감형 인버터 모터를 이용해서 건물주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난 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커플형 가이드롤러를 본격 적용하여 흔들림 현상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했다.

송승봉 수석부장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승차감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개발 결과 「진동과 소음이 일본 제품보다 평균 30% 정도 작아졌다」고 말했다.

LG산전은 올해 신제품에 대한 품질 안정화가 완료되었으므로 약 4200억원 정도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고, '99년에는 완전히 이 기종으로 대체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수출도 이 엘리베이터를 주력기종으로 해서 중국, 미주, 중남미, 중동, 유럽, CIS 등을 공략할 방침이며, 해외공장인 중국 대련공장에서도 올해 500대 정도를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 업계 최초로 엘리베이터 생산 10만대 돌파

한편 이날 LG산전은 196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 사업에 참여한 이래 30년만에 엘리베이터 생산 10만대를 돌파하는 기념식도 함께 가졌다.

국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총 12~13만여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LG산전의 제품이 8만여 대(수출 물량이 2만여 대)이다.

그 동안 LG산전은 1968년 서울 삼풍상가에 엘리베이터 2대를 최초로 납품한 이래 1977년 국내 최초로 엘리베이터 수출에 성공하였다. 또한 1984년에는 마이콤 엘리베이터를, 1985년에는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제어방식의 인버터 엘리베이터를, 1992년에는 퍼지 기능의 군관리 시스템 등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는 등 국내 승강기 산업을 이끌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차세대 분산제어 엘리베이터를 개발하여 해외신진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0만번째로 생산하는 엘리베이터가 독자 기술에 의한 차세대 분산제어 엘리베이터라는 것에 대하여 LG산전 관계자들은 더욱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 엘리베이터 역사를 처음으로 개척한 LG산전은 국내 최고의 시장점유율(약 50%)을 유지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ISO 9001 인증 및 ISO 14001을 획득하는 등 품질 및 기술력에서 국내 선두를 달리고 있다.

LG산전은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 지난해에는 세계 최고의 유압 엘리베이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美 셈코(CEMCO Lift)사를 인수하여 유압 부분의 생산 능력을 강화했으며, 중국 대련에 생산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세계 전역에 16개 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만여 대의 엘리베이터를 수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10만번째 엘리베이터 제막식을 거행하고 10만번째 고객에 대한 감사의 선물을 증정하고 공장을 견학하는 자축행사를 가졌다. ㅈ